

제주지역 대학생의 취업 준비 활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관우**·남진열**

- I. 서론
- II. 선행연구 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논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 상태와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는 제주지역 2~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313부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SPSS win 1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T-test와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부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일자리는 있으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 부족을 들었으며, 안정적인 공무원(공기업)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87.8%가 취업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구직예상기간도 58.8%가 2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 실태를 보면 대부분 인터넷(86.5%)을 이용해 정보를 습득하고, 친구(26.6%)나 선배(23.7%)에게 주로 취업상담을 하며, 취업준비비용도 10만원 이하

* 주 저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 교신 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가 56.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5%가 전공과 희망직장이 일치한다고 하였지만, 희망직장의 채용조건과 취업준비내용은 62.3%가 불일치하였다. 셋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지각 수준은 여성, 3학년, 인문사회계열, 중상층에서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공-희망직장 일치도는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취업가능성은 학업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취업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반면 채용조건-취업준비내용은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주제어 : 제주, 대학생, 취업준비활동, 취업스트레스

I. 서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성장과정인 성인 초기단계로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태도와 자신감, 가족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 수행, 결혼, 취업, 사회관계 확대의 발달과업을 통해 독립된 성인을 준비하는 시기이다(고관우·남진열, 2012).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아래 청소년기를 보내고 현재는 유럽발 경제 위기에 당면하면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노동시장의 성격변화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학초기부터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전공과의 괴리감, 취업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청소년기 후기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대로 이루기가 힘들게 할뿐 아니라 취업은 가장 큰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여전히 시장성 있는 기술훈련을 많이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생들은 학업과 별도의 취업준비를 해야 하며, 여기에 최근의 청년실업은 대학생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취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신동우·유계숙, 2012). 박미진, 김진희 및 정민선(2009)은 상담을 받고자 상담실을 찾는 대학생들에서 진로 문제로 고

민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고, 취업난이 심각해진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보고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진로와 취업에 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정해은, 2000; 박경란, 2006; 장연집·박경·최순영, 2006; 박미진 외, 2009; 이은지, 2010; 고관우·남진열, 2012).

통계청(2010; 2012)의 보고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20~29세 실업률은 7.0~7.9%로 전체 평균 실업률 3.2~3.7%보다 두 배 이상 꾸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5월 고용동향의 연령계층별 전년 동월대비 실업자 증감에서도 15~29세의 실업률은 7.3%에서 8.0%로 청년실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2000년 이후 제주지역 고용동향 분석’에서도 제주지역인 경우 질적 일자리 정체와 함께 지난 11년간 경제활동 참가율에 있어 20대가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연령별 취업자에 있어서도 20대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제주일보, 2012. 10. 31.). 또한 구인율과 실업률간의 관계를 통해 일자리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¹⁾에서도 2010년 이후 제주지역 노동수급의 미스매치가 심화(일자리 중개 기능의 효율성 저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2011년 중 취업가능 일자리 수 대비 취업진수 비율은 32.6%로 경남(27.2%), 충남(30.8%)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은행 제주본부, 2012). 또한 제주지역 대학생들은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 산업 특성상 다양한 기업체를 경험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청년실업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업준비활동과 함께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희망직업과 전공의 불일치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 준비에 더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전연진, 2008), 취업 희망직장

1) 동 곡선은 구인율(job vacancy rate)과 실업률(unemployment rate)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곡선으로 베버리지 곡선의 이동을 가지고 일자리 중개기능의 효율성 하락(상승) 여부를 알 수 있음.

의 채용조건과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활동 간에 괴리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또한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만큼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 취업문제와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연구(장원섭·신헌만·옥준필, 2000; 정태영·이기엽, 2005; 박성재·반정호, 2006; 장재윤·신희천·이지영, 2007; 전연진, 2008; 김병숙·김보인·이보미, 2009; 윤명희·신현숙·서희정, 2010; 남진열, 2010; 최현석·이영선·하정철, 2011)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의 일부로서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취업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살펴보거나 취업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취업준비 활동 실태와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이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학생 취업지도의 개입 방안 모색과 함께 대학생들의 구인·구직자간 이질성이나 정보부재 등으로 인한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학내외 취업관련 기관들의 취업지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대학생과 취업스트레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입시라는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그들 자신의 관심 영역이나 적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탐색과정을 가져보지 못한 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생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로와 취업에 있어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남윤희, 2007; 차정은 외, 2007; 윤명희·서희정, 2009; 윤명희 외, 2010). 더욱이 대학에서의 학업 환경은 전공공부, 학점관리, 진로 등

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매우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데, 독립이라는 발달과업과 청년실업 및 취업난 등 외부적 환경요인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신동우·유계숙, 2012). 실제로 대학생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 중 4명 중 1명이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경험하는 주요 스트레스는 취업(진로결정)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로 나타났다(김성경, 2003; 이은희, 2004; 이숙정·유지현, 2008; 고관우·남진열, 2012).

취업스트레스는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등 취업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황성혜와 박종구(2009)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 이훈구, 김인경 및 박윤창(2000)의 연구에 따르면 미취업 상태인 20대 청년들이 취업한 집단에 비해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그리고 불안 경향성 모두에서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다고 하였고, 윤명숙과 이효선(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우울하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73.9%가 취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불안하고 우울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www.incruit.com, 2009), 또 다른 구인·구직 사이트의 자살 충동 설문조사 보고에서는 대학생의 60%가 자살충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취업난(20%)으로 나타나고 있다(www.alba.co.kr, 2009).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심리적 또는 사회·정서적 측면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류진혜와 김태성(1998)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정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업과 취업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고 하였으며, 신현균과 장재운(2003)의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경증이 취업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박경란(2006)은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으므로 취업스트레스와 함께 우울 증상을 관리할 포함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이은지(2010)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와 학업·취업스트레스와 관계를 조사한 신동우와 유계숙(2012)은 대학생의 자이분화는 학업·취업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 즉 ‘진로준비행동’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김봉환, 1997), 이제경(2004)은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취업준비행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대학생의 취업준비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하기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구직 활동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이라 할 수 있다. 직업세계에 대한 구직 활동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습득한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정보의 양과 질, 인식 주체의 객관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직업경험 등)과 심리적 특성(흥미, 관심, 기대, 성역할 의식 등), 그리고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시점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명희 외, 2010).

현대경제연구원(2010)의 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업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를 보면 구직활동에 있어 대학생들은 직업의 안정성(25.1%)을 가장 중요한 직업선택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소재 대학생들은 사무직 회사원(52.2%)을 선호한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대생들은 공무원·공공기관(30.9%)을 선호하한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은행 제주본부(2012) 보고에서도 제주지역 4년제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타 학력에 비해 ‘공기업·공공기관’(38.8%) 및 ‘대기업’(28.6%)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임금·복리후생’(31.5%)과 ‘고용의 안정성’(20.9%)을 취업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대체로 공통적인 조사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살펴보면 기업의 채용조건과 대학생의 취업준비내용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취업준비행동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현대경제연구원,

2010), 구인업체의 인력부족 직종과 구직자들의 선호 직종 간에 매우 높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나타났다(한국은행 제주본부, 2012).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박성재와 반정호(2006)는 학력과 무관하게 학점과 재학 중 일 경험, 취업준비활동이 취업확률을 높인다고 하였지만,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김우영, 2002; 박성재·반정호, 2006; 김정숙, 2008). 물론 일자리 경험이나 자격증이 임금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이병희, 2003; 이상준, 2006), 직업훈련 참여와 자격증 취득이 개인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적극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박성재·반정호, 2006). 또한 학점은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진미석·윤형한, 2003)와 학점이 취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기업 취업에 있어서는 학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태영·이기엽, 2005)가 있다.

대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장재윤 외, 2007), 전공과 직업일치도가 취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서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장원섭 외, 2000; 김정숙, 2008; 전연진, 2008). 이는 개인의 희망직종과 취업한 기업의 일치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취업 성공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로서 대학생들의 희망직업과 전공 일치 여부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희망직업-전공 일치도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였다(전연진, 2008). 김병숙 외(2010)는 대학생이 취업준비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비용의 많고 적음보다는 자발적으로 자기능력 개발 및 자기성장의 의미를 찾는 것이 구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체로 취업스트레스를 대학생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이나 인적자본론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느끼는 개인의 문제에서 접근하고 있어 구직행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준비 노력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살펴볼 수 없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준

비활동 상태를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준비행동이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 상태와 취업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4학년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7일부터 1주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 가용표집방법을 활용하여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활용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13부가 최종통계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학년			전공계열	
	여자	남자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사회	자연이공
명 (%)	161 (51.4)	152 (48.6)	81 (25.9)	105 (33.5)	127 (40.6)	173 (55.3)	140 (44.7)
	313(100)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313명의 응답자 중 여학생이 161명(51.4%), 남학생이 152명(48.6%)이고, 학년별로는 2학년 81명(25.9%), 3학년 105명(33.5%), 4학년 127명(40.6%)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173명(55.3%), 자연이공계열 140명(44.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

1)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현대경제연구원(2010)의 서울 및 지방 2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업활동 실태에 관한 여론조사의 도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진로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보다 적합하도록 일부 문항을 제외 또는 수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취업준비활동과 관련된 구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구직활동 5문항과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서 실질적인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2와 같다. 이때 희망직장의 채용조건과 취업준비내용의 일치도의 경우 희망하는 직장의 채용조건에 응답한 결과와 취업준비내용의 응답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불일치의 경우 ‘0’, 일치할 경우 ‘1’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표 2>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

취업 준비 활동	구직 활동 (5문항)	청년 실업의 원인 직업선택 고려요인 취업희망 직장 취업 정보 습득 방법 취업 상담 대상
	취업 준비 행동 (6문항)	희망연봉 구직 예상기간 취업가능성 취업준비비용(월) 희망직장 채용조건-취업준비내용 일치도 진공(전공-희망직장) 일치도

2)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황성원(1998)이 코넬대학의 Cornell Medical Index를 참고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박경란(2006)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3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다. 기존 척도의 경우 4개의 하위영역 즉, 성

격 스트레스, 가족 환경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성격 스트레스 .94, 가족 스트레스 .90, 학교환경 스트레스 .84, 학업 스트레스 .7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추출법과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때 주성분 분석으로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이 0.4이하(송지준, 2011)인 2문항을 제거 후 다시 요인 분석한 결과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항 내용 중 잘못 묶인 문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24문항을 이용하였다. 이때 기존 척도와 요인분석 결과 문항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하위 요인 중 성격 스트레스를 제외한 가족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일치하였으며, 성격 스트레스의 경우 취업으로 인한 신경과민 관련 문항과 취업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불안감 관련 문항으로 구별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취업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성격 스트레스 중 성격 1(신경과민) .855, 성격 2(취업불안감) .852, 가족 스트레스 .795, 학교환경 스트레스 .806, 학업 스트레스 .838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의 자료는 부호화과정(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취업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ANOVA 검사를 실시하고, 취업준비활동 중 실질적인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활동

1) 직업세계에 대한 구직활동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은 표 3과 같다.

<표 3> 직업세계에 대한 구직활동 인식

구분		명(%)	구분		명(%)
청년 실업의 원인 (n=313)	일자리는 있으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 부족	177(56.5)	취업 희망 직장 (n=313)	국가기관(공무원)	77(24.6)
	직장(일자리) 부족	60(19.2)		공기업(공사)	70(22.4)
	취업정보 부족	36(11.5)		전문직기업	33(10.5)
	구직노력 부족	29(9.3)		대기업	31(9.9)
	기타	11(3.5)		비영리기관단체	19(6.1)
직업 선택 고려 요인 (n=313)	적성 및 흥미	105(33.5)		외국계기업	18(5.8)
	안정성	79(25.2)		금융업	15(4.8)
	수입 및 연봉	59(18.8)		벤처기업	10(3.2)
	보람 및 자아성취	36(11.5)		해외취업	8(2.6)
	발전성 및 장래성	19(6.1)		자영업	6(1.9)
	명예 및 명성	13(4.2)		중소기업	5(1.6)
	기타	2(0.6)		기타	21(6.7)
취업 정보 습득 방법 (n=312)	인터넷 정보검색	141(45.2)		취업 상담 대상 (n=312)	친구
	희망직장이나 기관의 홈페이지 등	71(22.8)	선배		74(23.7)
	취업관련 사이트	36(11.5)	부모 및 가족		57(18.3)
	취업동아리 및 스터디모임	16(5.1)	없다		27(8.7)
	취업박람회 및 기업 채용설명회	15(4.8)	해당분야종사자		23(7.4)
	취업관련 서적	9(2.9)	대학교수		22(7.1)
	교내 취업지원센터	8(2.6)	취업전문상담사		11(3.5)
	공공기관 홈페이지	6(1.9)	기타		15(4.8)
	기타	10(3.2)			

먼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56.5%가 일자리는 있으나 마음에 드는 일자리 부족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직장(일자리) 부족 19.2%, 취업정보의 부족 11.5%, 구직노력 부족 9.3%, 기타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선택 기준에 대한 고려 요인에서는 적성 및 흥미가 33.5%로 가장 높았으며, 안정성 25.2%, 수입 및 연

봉 18.8%, 보람 및 자아성취 11.5%, 발전성 및 장래성 6.1%, 명예 및 명성 4.2%, 기타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대학생들의 취업 희망 직장의 경우도 안정적인 국가기관(공무원)(24.6%)과 공기업(공사)(22.4%)이 1, 2순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인 능력이나 수입과 관련된 전문직기업(10.5%)이나 대기업(9.9%)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1.6%로 선호도가 제일 낮았다.

대학생들이 취업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45.2%, 희망직장이나 기관의 홈페이지 22.8%, 취업관련 사이트 11.5% 등의 순으로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취업박람회 및 기업 채용설명회와 취업지원센터는 각각 4.8%와 2.6%에 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상담 대상은 대부분 친구(26.6%)나 선배(23.7%)와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 및 가족(18.3%)이었다. 반면 취업상담 대상이 없다는 경우도 8.7%나 되었고, 해당분야 종사자와 대학교수, 취업전문 상담사는 각각 7.4%, 7.1%, 3.5%에 그쳤다.

2)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준비행동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취업시 희망연봉을 살펴보면, 32.3%가 2,001~2,500만원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2,000만 원 이하가 29.8%, 2,501~3,000만원 16.0%, 3,001~3,500만원 7.7%로 나타나고 있으며, 3,501만 원 이상도 14.4%로 나타났다. 이어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구직 예상기간으로 1~2년 미만 40.2%, 1년 미만 18.6%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구직기간을 2년 이하로 자신감을 보였지만, 2~3년 미만 22.2%, 3년 이상 10.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8.7%였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취업 가능성에서도 49.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12.2%만이 취업을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38.5%가 보통이라고 응답해 취업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지출 비용은 10만 원 이하가 32.6%, 11~20만 원이 22.0%였으며, 21만 원 이상인 경우도 21.1%나 되었지만 24.3%는 취업준비 지출 비용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희망직

장의 채용조건과 취업준비내용과의 일치정도를 보면 응답자의 62.3%가 불일치한다고 하였고, 37.7%만이 일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희망하는 직업과 전공과의 일치 수준에서는 대체로 일치 이상이 58.5%, 대체로 불일치 이하가 41.2%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구직에 있어 대체로 부족한 정보로 인한 효과적이지 못한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구분		명(%)	구분		명(%)
취업시 희망 연봉 (n=313)	1,500만원 이하	8(2.6)	구직 예상 기간 (n=311)	1년 미만	58(18.6)
	1,501~2,000만원	85(27.2)		1~2년 미만	125(40.2)
	2,001~2,500만원	101(32.3)		2~3년 미만	69(22.2)
	2,501~3,000만원	50(16.0)		3~4년 미만	20(6.4)
	3,001~3,500만원	24(7.7)		4년 이상	12(3.8)
	3,501만원 이상	45(14.4)		잘 모르겠다	27(8.7)
취업 가능성 (n=312)	전혀 불가능	3(1.0)	취업 준비 지출 비용 (월) (n=313)	지출비용없음	7(24.3)
	약간 불가능	35(11.2)		10만원 이하	102(32.6)
	보통	120(38.5)		11~20만원	69(22.0)
	약간 가능	90(28.8)		21~30만원	25(8.0)
	매우 가능	64(20.5)		31~40만원	14(4.5)
			41만원 이상	27(8.6)	
취업 준비 일치도 (n=313)	채용조건-취업준비 불일치	195(62.3)	전공 일치도 (n=312)	전혀불일치	22(7.0)
	채용조건 -취업준비 일치	118(37.7)		대체로불일치	107(34.2)
				대체로일치	142(45.4)
			매우일치	41(13.1)	

2.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수준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먼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성격 스트레스 중 취업불안감($t=3.585, p<.001$), 가족스트레스($t=2.420, p<.05$), 그리고 학교환경 스트레스($t=3.400, p<.01$)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학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수준에서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3학년의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나 4학년보다 오히려 3학년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격 스트레스 중 신경과민($F=5.497, p<.01$)과 학업 스트레스($F=5.38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 취업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구분 (M±SD)		취업 스트레스				
		성격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신경 과민	취업 불안감			
성 별	여성(n=161)	2.08±.77	2.61±.88	2.46±.84	2.69±.78	2.44±.98
	남성(n=152)	2.05±.72	2.27±.80	2.23±.84	2.39±.79	2.53±1.08
	t값	.380	3.585***	2.420*	3.400**	-.785
학 년	2학년(n=81)	1.83±.67	2.34±.85	2.22±.84	2.36±.86	2.16±.99
	3학년(n=105)	2.17±.78	2.51±.86	2.44±.84	2.62±.78	2.61±1.02
	4학년(n=127)	2.13±.74	2.45±.87	2.35±.85	2.59±.75	2.57±1.03
	F값	5.497**	.880	1.550	2.956	5.389**
전 공 계 열	인문사회(n=173)	2.04±.70	2.53±.83	2.38±.84	2.58±.78	2.63±1.06
	자연이공(n=140)	2.10±.81	2.34±.89	2.31±.86	2.50±.82	2.30±.96
	t값	-.791	1.997*	.785	.912	2.890**
주 관 적 경 제 수 준	하층(n=16)	2.07±.74	2.14±.70	2.14±.81	2.48±.58	2.50±1.14
	중하층(n=72)	1.91±.72	2.48±.84	2.34±.87	2.44±.78	2.25±.94
	중간층(n=187)	2.07±.70	2.47±.84	2.32±.82	2.60±.80	2.50±1.02
	중상층(n=23)	2.62±.95	2.71±1.05	2.60±.98	2.61±.87	2.69±1.00
	상층(n=13)	1.92±.84	1.94±.80	2.35±.99	2.24±.87	3.03±1.31
	F값	4.249**	2.202	.541	1.059	2.162

*p<.05, **p<.01, ***p<.001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수준에서는 신경과민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이공계열 학생들보다 스트레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 스트레스 중 취업불안감($t=1.997, p<.05$)과 학업 스트레스($t=2.890, p<.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상층이나 하층 보다 중간층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조금 높은 수준의 평균

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성격 스트레스 중 신경과민($F=4.249, p<.01$)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상관관계 분석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준비행동이 대학생들의 취업스 트레스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상관관계분석

	①	②	③	④	⑤	⑥	성격스트레스		⑨	⑩	⑪
	희망 연봉	구직 예상 기간	취업 가능성	취업 준비 비용	취업 준비 일치도	전공 일치도	⑦ 신경 과민	⑧ 취업 불안감	가족 스트 레스	학교 환경 스트 레스	학업스 트레스
①	1										
②	-.024	1									
③	.226**	-.291**	1								
④	.223**	.062	.025	1							
⑤	.001	-.105	.107	.001	1						
⑥	-.019	-.058	.131*	-.047	.024	1					
⑦	.117*	-.012	-.215**	.235**	.003	-.179**	1				
⑧	-.159**	.120*	-.421**	.002	-.069	-.207**	.596**	1			
⑨	-.013	.098	-.300**	.076	-.013	-.209**	.494**	.545**	1		
⑩	.020	.028	-.289**	-.019	-.088	-.199**	.440**	.562**	.511**	1	
⑪	-.007	-.015	-.116*	.073	-.079	-.427**	.338**	.380**	.404**	.450**	1

* $p<.05$, ** $p<.01$, *** $p<.001$

표 6을 살펴보면, 성격스트레스 1(신경과민)의 경우 희망연봉과 취업 준비비용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취업가능성과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격스트레스 2(취업불안감)에서는 구직예상기간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희망연봉, 취업가능성,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취업가능성과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에서만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취업 스트레스 영향요인

대학생의 직업세계에 취업준비활동 중 실질적인 취업준비행동이 대학생이 지각하는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별 모든 회귀모형에 대한 공차한계는 0.1이상으로 다중공선상에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값도 모두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성격스트레스 중 신경과민인 경우 학년($t=.149$, $p<.005$), 희망연봉($t=2.266$, $p<.024$), 취업준비지출비용($t=3.666$, $p<.000$)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취업가능성($t=-4.840$, $p<.000$)과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t=-2.518$, $p<.012$)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취업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전공과 희망직장은 일치할수록 그리고 희망연봉과 취업준비지출비용은 낮을수록 신경과민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또한 학년이 낮을수록 신경과민 수준은 낮을 것이다. 그 영향력은 취업가능성($\beta=-.281$), 취업준비지출비용($\beta=.205$), 학년($\beta=.149$),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beta=-.137$), 희망연봉($\beta=.127$) 순으로 그 설명력은 18.4%이다. 둘째, 성격스트레스 중 취업불안감의 경우 성별($t=3.129$, $p<.002$)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취업가능성($t=-6.811$, $p<.000$)과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t=-3.041$, $p<.003$)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그리고 취업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전공과 희망직장은 일치할수록 대학생의 취업불안감은 낮아질 것이다. 그 영향력은 취업가능성($\beta=-.380$), 성별($\beta=.165$),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beta=-.158$)순으로 그 설명력은 24.7%이다.

셋째,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성별($t=.147$, $p<.009$)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업가능성($t=-4.794$, $p<.000$)과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t=-3.205$, $p<.001$)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그리고 취업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전공과 희망직장은 일치할수록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는 낮아질 것이다. 그 영향력은 취업가능성($\beta=-.283$),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β

<표 7>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 분석

구분		취업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신경과민	취업불안감			
		β (t)	β (t)	β (t)	β (t)	β (t)
상수		- (7.497***)	- (10.855***)	- (8.569***)	- (9.991***)	- (6.702***)
일반적 특성	성별	.058 (1.064)	.165 (3.129**)	.147 (2.635**)	.182 (3.288**)	-.006 (-.107)
	학년	.149 (2.808**)	.069 (1.354)	.071 (1.322)	.129 (2.420*)	.134 (2.634**)
	전공계열	-.044 (-.812)	.075 (1.443)	.018 (.330)	.040 (.745)	.130 (2.515*)
	경제수준	.070 (1.282)	.059 (1.117)	.034 (.609)	.021 (.377)	.115 (2.185*)
취업준 비행동	희망연봉	.127 (2.266*)	-.057 (-1.060)	.050 (.872)	.116 (2.061*)	.003 (.053)
	구직	-.092 (-1.648)	.001 (.012)	.005 (.094)	-.067 (-1.198)	-.057 (-1.071)
	예상기간	-.281 (-4.840***)	-.380 (-6.811***)	-.283 (-4.794***)	-.286 (-4.902***)	-.087 (-1.570)
	취업가능성	.205 (3.666***)	.051 (.947)	.090 (1.578)	-.013 (-.235)	.044 (.822)
	취업준비	.038 (.718)	-.027 (-.526)	.027 (.506)	-.053 (-.985)	-.079 (-1.550)
	지출비용	.038 (.718)	-.027 (-.526)	.027 (.506)	-.053 (-.985)	-.079 (-1.550)
	취업준비 일치도	-.137 (-2.518*)	-.158 (-3.041**)	-.177 (-3.205**)	-.179 (-3.289**)	-.396 (-7.621***)
	전공일치도	-.137 (-2.518*)	-.158 (-3.041**)	-.177 (-3.205**)	-.179 (-3.289**)	-.396 (-7.621***)
R2		.184	.247	.153	.175	.249
F		6.685***	9.697***	5.366***	6.259***	9.828***
Durbin-Watson		1.815	1.717	2.023	1.932	2.060

*p<.05, **p<.01, ***p<.001

주)성별: 여성=1, 남성=0 /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1, 자연이공계열=0

취업준비(비용조건-준비)일치도: 일치=1, 불일치=0

전공(희망직장)일치도: 일치=1, 불일치=0

=-.177), 성별(β=.147)순으로 그 설명력은 15.3%이다. 넷째, 학교환경 스트레스의 경우 성별(t=3.288, p<.001), 학년(t=2.420, p<.016) 및 희망연봉(t=2.061, p<.040)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취업가능성(t=-4.902, p<.000)과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t=-3.289, p<.001)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저학년일수록 희망연봉이 낮을수록 그리고 취업가능성은 높게 인식할수록 전공과 희망직장이 일치할수록 학교환경 스트레스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그 영향력은 취업가능성($\beta = -.286$)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성별($\beta = .182$),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beta = -.179$), 학년($\beta = .129$), 희망연봉($\beta = .116$) 순으로 그 설명력은 17.5%이다. 다섯째,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학년($t = 2.634$, $p < .009$), 전공계열($t = 2.515$, $p < .012$)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t = 2.185$, $p < .030$)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업준비행동 중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t = -7.621$, $p < .000$)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자연이공계열 학생일수록 고학년보다 저학년일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전공과 희망직장이 일치할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낮을 것이다. 그 영향력은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beta = -.396$)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학년($\beta = .134$), 전공계열($\beta = .130$), 주관적 경제수준($\beta = .115$) 순으로 그 설명력은 24.9%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실업문제의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취업준비 활동 실태와 취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준비행동이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 취업지도 전략 모색과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발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제주지역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 실태와 취업스트레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구직활동 인식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 일자리는 있으나 마음에 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선택 고려요인으로 적성 및 흥미를 가장 우선시 한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안정성과 수입 순이었다. 하지만 취업희망 직장에서는 국가기관(공무원)이나 공기업과 같은 안정성이 높은 곳을 선호한다고 하여 모순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기관 홈페이지, 취업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취업정보를 습득하고 있

며, 취업박람회와 교내취업지원센터의 활용은 저조하였다. 더욱이 취업 상당대상에서도 주로 친구나 선배 및 가족에게 의지하면서 취업전문가, 대학교수, 해당종사자 등을 이용한 전문상담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진열(2010)의 연구와는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현대경제연구(2010)와 한국은행 제주본부(2012)의 연구와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부족하고 구직활동에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취업정보 습득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내의 취업지원센터 또는 취업지도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한다.

둘째,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준비행동에서 대학생들은 취업시 희망연봉으로 한국경영자총연합회(2011)가 조사한 전국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졸 평균 초임연봉 2,551만 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응답하였다. 하지만 취업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인식하였으며, 구직 예상기간도 대부분 2년 전후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절반이상이 취업준비를 위해 10~20만원을 지출한다고 하였지만 취업준비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도 24.3%나 되었다. 특히 대학생들은 전공과 희망직장은 대체로 일치한다고 응답하면서도 취업준비내용의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서의 괴리현상은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긍정적면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점은 취업준비에 있어 희망직장의 채용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주지역의 열악한 기업체 특성 등으로 인해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취업전략을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취업걱정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대체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3학년들이 가장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이공계열 학생들보다 좀 더 높은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었다. 주관적 경제수준에서도 전반적으로 중상층이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인문사회계열에서 여학생이 많고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이 전공 활용도가 다소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한 4학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대한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는 3학년 학생들에게 더 강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지도에

있어 3학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진로를 대비할 수 있도록하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과 성별과 전공 계열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취업준비행동을 중심으로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희망연봉은 신경과민과 학교환경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취업가능성은 신경과민, 취업불안감, 가족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취업준비지출비용은 신경과민에서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공과 희망직장 일치도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구직예상기간과 취업준비내용 일치도는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내용이 희망직장의 채용조건과 연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공에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취업문제로 인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제시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면서 전공을 활용한 구직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취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직장의 채용조건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하여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취업 자신감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인식전환 프로그램의 강화이다. 즉,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시장 및 실물경제 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처하면서 다양한 직업관을 갖도록 하는 실무적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해외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 홍보를 통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의 강화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의 취업전략을 위한 정보부재가 심각하며 취업스트레스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희망직장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 습득 강화와 실질적인

취업상담의 도움을 위한 대학생 취업지도 지원시스템의 강화이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체계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 및 정부의 취업박람회와 설명회, 학교의 취업지원센터의 실질적 개선 노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기업체 특성을 파악하고 실적위주의 단순한 구인정보의 안내에서 벗어나 구직자의 희망 직종 및 임금 수준 등 개인별 구직 수요와 구인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매칭 시켜줄 수 있는 일자리 중재기능의 강화와 성별과 전공계열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도 및 대학생의 희망직장에 맞는 취업준비 안내 서비스 제공이다. 또한 대학교수 및 자문단의 역량 강화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이나 희망직장 종사자와의 멘토링 서비스를 개발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와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희망하는 직장으로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학생의 희망직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정보제공 정책과 맞춤형 취업지도 전략의 강화이다. 즉, 전공이 직업이 되는 전공강화 취업전략 수립이다. 이는 기업중심 취업전략에서 기업체에서의 전공활용 업무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취업전략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채용조건에 맞는 맞춤형 취업준비내용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여주어 취업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실질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전공과 희망직장 간 산학연계 프로그램 강화와 함께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의 개선 및 확대를 병행하여 대학생들의 전공활용이 가능한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확대와 다양한 직업세계의 경험으로 인한 미래지향적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대학생의 실질적인 취업준비활동 상태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되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제주지역의 구인 및 취업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부족한 점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년취업 정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그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 기업체의 특성과

지자체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정책 및 진로지도 전략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도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관우·남진열(2012),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2호.
- 김병숙·김보인·이보비(2009),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 지출의지 및 정도와 구직 효능감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2권 4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2호.
- 김우영(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중앙교육정보원』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 김정숙(2008), 「취업준비 활동의 결정요인 및 직업이행 효과」, 『한국고용정보원』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심포지엄 논문집.
- 남진열(2010), 「대학생의 개인적 직업 관련요인들과 취업준비실태의 관계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4호.
- 남윤희(2007), 「2007년 신입생실태조사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30호.
- 류진혜·김태성(1998),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제16권.
- 박경란(2006), 「대학 졸업반 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김진희·정민선(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0권 1호.
- 박성재·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제29권 3호.
- 송지준(2011),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도: 21세기사.
- 신동우·유계숙(2012),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이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1호.
- 신현규·장재운(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2권 4호.
- 알바천국, <http://www.alba.co.kr>(2009. 2)
- 윤명희·서희정(2009), 『2008년 동의대학교 신입생의 진로분비 실태조사』, 『동의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23호.
- 윤명희·신현숙·서희정(2010), 『대학생의 직업세계 인식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9권 4호.
- 윤명희·유형숙(2010), 『한일 관광관련학과 대학생의 희망직업 전공 간 일치여부 및 취업준비행동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제27호.
- 윤명숙·이효선(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3호.
-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준(2006), 『자격증이 임금,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9권 2호.
- 이숙정·유지현(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2권 3호.
- 이은지(2010),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건강심리학회지』 제9권 1호.
- 이제경(2004), 『한국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심리적 특성 및 개인배경 변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훈구·김인경·박윤창(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000』 제6권 2호.
- 인쿠르트, <http://www.incruit.com>(2009. 10)
- 장연집·최순영·박경(2006),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장원섭·신형만·옥준필(2000),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II: 고등교육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재윤·신희천·이지영(2007), 『대학에서 ‘전공에 몰입하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가? 대학생들의 전공 몰입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제20권 4호.
- 전연진(2008), 『대학생이 지각한 희망직업-전공 일치여부와 취업준비행동』, 『대학

- 생 직업세계 인식 및 직업선택 실태 심포지엄 자료집.
- 정태영·이기엽(2005), 「대졸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학점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8권 2호.
- 정해은(2000), 「오산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소』 제5호.
- 제주일보(2012), 일자리 없는 20대 백수 청년 수두룩. 2012. 10. 31. 6면.
- 진미석·윤형한(2003), 「미래의 직업세계(2003): 대학 재학생 희망직업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차정은·김아영·이은경·김봉환(200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 경향성 검증」, 『교육심리연구』 제21권 4호.
- 최현석·이영선·하정철(2011),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2권 2호.
- 통계청(2010; 2012), 『고용동향』.
- 한국경영자총연합회(2011), 『2011년 임금조정실태조사』.
- 한국은행 제주본부(<http://www.bok.or.kr>)(2012), 「제주지역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2010), 「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업활동 실태에 관한 여론조사-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업시장 현실간의 4가지 괴리」, 『경제주평』 389.
- 황성원(1998),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혜·박종구(2009), 「대학생 취업난의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자연경관의 효과-사바나 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4호.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in Jeju

Ko, Kwan-Woo*·Nam, Chin-Yeol**

This study is to grasp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stress level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to examine their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stress. The number of 313 university students(2nd~3rd) participated in the study. By means of the SPSS WIN 18.0,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1)it has turned out that the students have picked out lack of favorite work positions among other reasons for youth unemployment though there are some work positions, and that they preferred stable public officials. 2)Most of the students acquired relevant information from internet, and they mainly consulted friends or superiors. While 58.5%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majors and desired job positions were corresponding, only 37.7% of them admitted the correspondence between employment conditions and employment preparation contents. 3)The employment stress levels perceived by the university students in average were generally high in female students, juniors, students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ciences, and students with higher than middle grades. 4)As for affecting factors in employment stress, the levels of correspondence between majors and desired job positions and employment possibility have turned out to be crucial as the former have negative effect on all the sub-areas and the latter on all the sub-areas except study stress while employment conditions and employment preparation contents had no effect.

Key Words : Jeju,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employment stress

교신 : 남진열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E-mail: namcy21@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3. 5. 21.

심사완료일 2013. 6. 21.

게재확정일 2013. 6. 25.